익산 내일신문
2004. 03. 09 / (발행일 : 2004년 03월 03일) / 매주 수요일 발행 Vol. 523

주민자치를 찾아서 – 조규대 시의원(황등면)

석재 원산지에 걸맞는 석재전시관 필요

황등면민들 공원 조성 욕구 높아

황등면의 조규대 시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황등의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질높은 황등석의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석재전시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황등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는 공원 조성을 꼽았다.

■ 황등을 소개해 달라.

황등은 익산시와 통합 전에는 익산의 관문 역할을 했으며 인구가 11,053명이나 되며 아파트도 많다.

전 면적의 78%가 평야이며 채석장 6개소, 석재가공업소 75개소가 있는 화강암 석재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황등하면 돌이 유명하다. 농사지역보다 읍인구가 더 많은 것도 특징이다.

■ 요즘 황등 석재산업의 실정은?

익산을 '보석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돌과 보석과 문화의 도시'라고 해야한다. 황등석재산업에 관련된 인구가 5만명으로 보석산업 관련인구보다 많다. 황등의 석재특별농공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IMF 이후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

황등은 예전에 일본에서 최고로 알아줄 만큼 품질이 좋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도 황등산 돌로 지었다. 전에는 8~90%가 수출위주였기 때문에 내수를 할 수 없었고 대신 그 자리를 포천석이 차지했다. 지금은 일본 수출도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

■ 석재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왕궁유적박물관 시방서에는 황등석을 쓰기로 돼 있었는데 건축하면서 중국산으로 바뀐 일이 드러난 일이 있다. 그걸 시장에게 항의해서 다시 황등석으로 교체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급공사는 황등석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첫 시정질문에서 황등은 석재 원산지인데 석재전시장 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시 전시와 판매 계약을 하는 귀금속판매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다. 태백과 보령의 석탄박물관을 답사할 예정이다. 원산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자료수집 중이다.

■ 황등의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황등의 인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면민들이 문화욕구를 못 채우고 있다. 공원이 영등동에는 22곳이 있지만 황등은 한 곳도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황등에 공원이 생기면 함라, 삼기, 용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황등은 읍내가 도로 한 곳을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면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더 넓게 발달할 수 있고 두 도로를 잇는 길들에 주차공간도 확보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간이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

황등에는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영창아파트 414세대, 대영아파트 114세대에 전세대가 입주해 있을 만큼 분양율이 높아 익산의 배후주거지로 결합가능성이 높다.

원대 뒤쪽에서 황등은 2km 밖에 되지 않는다. 원대 학생들의 유치를 위해 이 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개설했으면 좋겠다.

■ 익산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얼마 전 고도로 지정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추진된 일이 없어 안타깝다. 모든 문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보석, 돌, 문화의 도시로서 활성화방안도 모색해야 하고 지금 추진 중인 한방과학산업 단지 조성도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익산은 물이 없고 산이 없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 대학원을 조치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충남은 코스모스길이 정말 좋다. 익산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시 이미지를 위해 꽃길을 조성하자.

심미경 리포터 inthelife@empal.com